



이투데이 창간 14주년

2025 TECH QUEST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 ; 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

2024년 10월 17일(목), 09:30~16:40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지하1층)

주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ceuticals Association

이투데이 창간 14주년

2025 TECH QUEST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 ; 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

CONTENTS

행사개요	03
프로그램	04
개 회 사	05
축 사	06
연사소개	09

행사개요



취지

인류역사의 중요한 변곡점 중심엔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구심점이 되어 변화할 세상, 그에 따라 새로 그려질 '부의 지도'는 시대와 세계관을 막론하고 생존이 걸린 모두의 영속된 관심사입니다. 기술의 패권이 세계 경제의 패권이 된 현재, 미래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인 테크에 대한 탐구와 예측의 장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해마다 한발 앞서 펼치고 있습니다. 올 해 2회째를 맞는 창간 기념행사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는 세계 석학과 관련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를 모시고 해마다 급변하는 글로벌 리셋(Global Reset)에 대응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초혁신 능력을 견인할 것입니다.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고, 뉴 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이 될 <테크 퀘스트>는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존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테크 퀘스트>를 통해 기술로 사회에 이로운 변화를 견인하고 과학, 산업, 금융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2025 테크 퀘스트; AI, Health & Future(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AI)은 경제, 산업, 과학 및 의학, 사회와, 문화·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발전과 기술 진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및 의학 분야에 적용된 AI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방대한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질병 진단·치료·예방법을 탐색합니다. 또한 개인화된 치료방법 정밀의학(맞춤의학)의 기반을 다지며, 신약 개발에서도 많은 혁신적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질병 분석, 질환 예측 모델 제시,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미래 의료시스템 구축과 환자 치료경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AI가 가져올 의료혁명의 미래를 조망합니다.

개요

행사명 | 2025 테크 퀘스트(Tech Quest);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

주 제 | AI, Health & Future(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09:30 ~ 16:40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층)

주 최 |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후 원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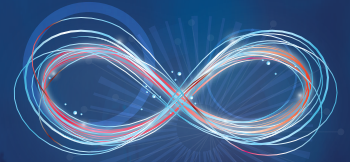
KKIDI
한국보안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09:00~09:30 (30)	등록 및 VIP티타임	
09:30~10:00 (30)	개회식	인사말: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축사: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웅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기념촬영
10:00~10:30 (30)	강연1	“의료AI 진단 진화는 계속된다” 이진형 스탠포드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
10:30~11:00 (30)	강연2	“소버린 AI에서 포용적 AI: 네이버의 글로벌 AI 전략”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
11:00~11:40 (40)	강연3	“의료 AI와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의 건강”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점심식사 11:50 ~ 13:20(90)		
세션1: 질병정복 앞당기는 AI 의료혁신		
13:30~13:55 (25)	발표1	“의료 AI는 어떻게 의료로 편입되는가”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
13:55~14:20 (25)	발표2	“LG AI in Life Science” 박용민 LG AI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
14:20~14:45 (25)	사례발표1	“AI 진단”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휴식 (14:45~15:00)		
세션2: 매트릭스의 현실, 뇌-컴퓨터 연결(BCI) 시대		
15:00~15:25 (25)	발표1	“BC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김성필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15:25~15:50 (25)	발표2	“BCI 혁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나” 임창환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15:50~16:15 (25)	사례발표1	“이식형 BCI: 질병과 장애 극복의 새로운 도전” 김병관 지브레인 대표이사
16:15~16:40 (25)	사례발표2	“국산 BCI 상용화 성공 사례 및 향후 전망: 일 환경, 규제 및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이사
폐회 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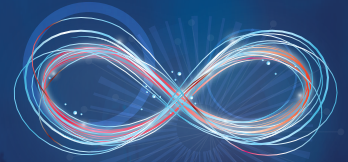
김 덕 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2025 테크 퀘스트’를 찾아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이투데이 대표이사 김덕현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영웅 회장님과, 오늘 강연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테크 퀘스트는 산업계와 학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을 탐구하고,
경제와 사회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이투데이가 해마다 개최하는
기술 포럼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석학과 IT 전문가를 초청해 AI 대전환과 헬스케어 산업의 뉴노멀을 내다볼 예정입니다.
AI는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 진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의과학 분야에 적용된 AI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방대한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질병 진단·치료·예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진단과 분석, 치료제 개발은 미래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테크 퀘스트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첨단 ICT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 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의 해법도 첨단 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이투데이는 본 행사를 통해 미래 기술을 조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 석학과 최고 전문가들이 전하는 ‘2025 테크 퀘스트’가 참석한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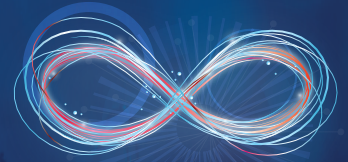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이투데이가 개최하는 '2025 테크 퀘스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투데이는 지난 14년 동안 살아있는 최선의 경제, 산업, 기술 정보를 전달하며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김덕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이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실 연사분들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논의하는 '인공지능, 건강, 미래'는 매우 뜨거운 글로벌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AI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바이오 헬스, 의료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2027년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 규모는 3,800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바이오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민관합동 컨트론타워인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법령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축 사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난달에 AI에 기반한 의료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암과 같은 필수요료를 중심으로 AI 기술개발 확대를 지원하고,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11만 명의 바이오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개방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바이오헬스 산업은 COVID-19에서 보았던 것처럼,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미국·일본·인도·EU와 함께 ‘바이오 제약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공유하는 등 연대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들이 미국의 FDA 승인을 취득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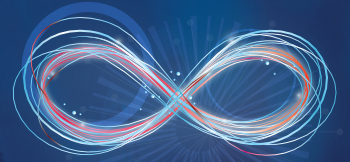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신속히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현장 애로나 고견을 전해주시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제약바이오 6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김영웅입니다.

오늘 이투데이에서 주관하는 2025년 테크퀘스트에 오신 여러 강연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투데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시며 이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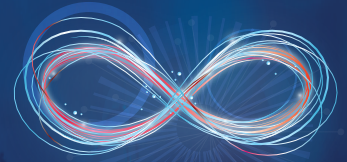
금일의 주제인 인공지능, 건강 그리고 미래는, 제가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의 디지털헬스산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산업은 향후 도래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짊어지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IT 기술력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각종 구습과 규제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도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방향 제시도 필요합니다.

오늘 각 발표자분들은 다양한 관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년은 보건의료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적용되는 중요한 첫해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대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보호,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의료데이터셋의 다양한 활용까지 수많은 담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의미한 행사가 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1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

- (현) 카카오벤처스 부대표
- (전) 삼성서울병원 기획실 임상조교수
- (전) 맥킨지 컨설턴트



발표2

박용민 LG AI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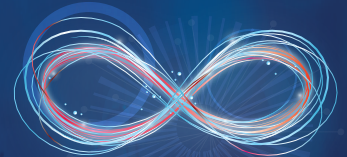
- (현) LG AI 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
- (전) 삼성 SDS AI 컨설팅팀 생명공학 산업 리더
- (전) 삼성 SDS ICT 연구소 바이오인포매틱스 랩 사업 파트장



사례발표1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 (현) 제이엘케이 대표



발표1

김성필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 (현)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 (전)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부교수
- (전) UNIST 인간공학과 조교수



발표2

임창환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 (현)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 (현) 한양대학교 뇌공학연구센터 센터장
- (현) 대한뇌파신경생리학회 회장



사례발표1

김병관 지브레인 대표이사

- (현) 지브레인 대표이사
- (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



사례발표2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이사

- (현) 와이브레인 대표이사
- (현) 세라젼 클리니컬 CEO
- (현) ISO/IEC JTC1 SC43 BCI 국제표준위원회 한국대표

* 위 프로그램 및 연 사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이투데이 헬스케어부 송병기 부장: 010-3244-6977 / songbk@etoday.co.kr
-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김영준 차장: 010-4070-9937 / kevin@etoday.co.kr